

# “선벨트 사업 광양을 성장축으로”

광양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남해안권 선벨트(Sunbelt)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북중국~광양~북미 연결 골든루트 개척 등

### 영·호남 화합 상생 발전 방안 국토부에 건의

남해안 선벨트사업은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남해안 일대를 신성장 산업벨트,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한다는 국토개발 프로젝트다.

전방향과 산업경제, 산업유통 실태와 방향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산업(28개 사업) 육성 ▲위그선 도입운항 ▲조선부품 소재 산업 육성 ▲신소재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 ▲광양항 물동량 확보 및 투자유치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광역사업 전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광양~북미 사안을 연결하는 '골든루트'와 광양~부산항을 잇는 해상 서틀운송시스템을 구축하고, 한·중·일 국제 물류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는 내용이 눈길을 끈다.

또 인근 시·군과 연계한 광역사업으로는 섬진강 관광재개발사업, 섬진강 리버빌리지 개발, 남해안 관광카드사업, 백운산 에코빌리지 개발 등이 포함됐다.

중부권 경제성장의 전진기지와 중심지로서 성장축 역할을 주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움직임을 실시했다"면서 "정부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광양시의 용역결과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남도를 비롯해 부산시·경남도를 아우르는 남해안 선벨트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해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은 생태자연환경의 경제적인 가치화, 기간산업의 고도화, 지역간 협력체계 구축, 철강·항만물류·조선·자동차 부품산업의 활성화 등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취재본부=김동희기자 dhkim@박영진 기자 pyj40792@

특히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비전달성과 관련된 전략산업으로 북중국~

최종 보고회 자료는 ▲광양시의 발



# 보성 '태백 박물관' 문학기행 명소 우뚝

## 소설 태백산맥 육필 원고 등 전시...개관 6개월만에 15만명

보성군이 운영하는 태백산맥 문학관이 개관 6개월 만에 문학기행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 개관한 이래 문학관 관람객은 모두 15만여명에 이른다"면서 "최근 KBS 2TV '1박 2일'에 '별교편'이 방영되면서 별교와 문학관을 둘러보고, 꼬막요리를 먹기 위해 수십만 명의 관람객이 별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여름방학을 맞아 주민과 함께하는 문학관, 열린 문학관을 테마로 '제1기 문학창작교실'과 '어린이들의 창의력 향상 교실'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1기 문학창작교실은 오는 23일부터 9월1일까지 매주 화요일 문학관내 문학사랑방과 채동선 음악당에서 운영된다. 대상은 소설창작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20명을 오는 1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력향상 교실은 오는 7월23일부터 8월27일까지 열린다. 안영옥 문화

작가와 이하영 화가의 강의로 진행될 계획으로, 초등학생 20여명을 오는 7월17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태백산맥 문학관에는 1983년 집필을 시작으로 6년 만에 완결한 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자료가 전시돼 있다. '소설을 위한 준비와 집필'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고 1만6천여매 분량의 태백산맥 육필원고를 비롯한 623점의 증여작품이 전시돼 있다.

또 1층 전시실에서 마주 보이는 높이 8m, 폭 81m에 이르는 '원형상-백두대간의 염원' 벽화는 이종삼 교수에 의해 시각화됐으며, 세계 최대·최초의 야외건식 '웅성벽화'로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별교의 지역적 특성이 거대한 물줄기의 '소설 태백산맥'을 낳았다면 태백산맥 문학관은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별교를 창조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문학기행 테마관광을 활성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선성근기자 sun@

## 애국시인 목일신 선생

### 고흥에 노래비 건립

"넓고 넓은 밤하늘엔 누가누가 잠자나 하늘나라 아기별이 깜빡깜빡 잠자지..."

어려서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이 자장가의 작사자이자 합일 애국시인인 고(故) 목일신(1913~1986) 선생의 삶을 기념하는 노래비가 건립됐다.

고흥군은 8일 "목일신 선생의 작품 세계를 재조명하는 노래비를 고흥읍 종합문화회관 입구에 건립했다"고 밝혔다.

사업비 8천여만원이 투입된 노래비는 대리석 기반에 스테인리스로 자전기를 형상화한 바퀴 2개를 제작했으며 노래말과 작가 약력, 작품설명 등을 담았다.

고흥 출신인 목 선생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따르릉 따르릉 비커나세요'로 잘 알려진 '자전기'를 지었으며 전주 신흥중학교 재학 중 '누가누가 잠자나'를 짓는 등 400여편의 주옥같은 동요와 동시, 수필 등을 지었다.

군은 노래비 건립과 함께 목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전후해 전국 어린이이 동요·동시대회와 학술대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향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던 목 선생은 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진취적 기상을 표현한 군민의 노래말을 짓기도 했다"며 "뜻은 같아 있지만 목 선생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섬진강에 토종어류 6만마 방류 구례 환경단체 회원과 공무원들이 제 14회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구례를 문척교회 섬진강변에서 참모예·메기 등 토종어류 6만마를 방류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섬진강의 토종 어류와 수중 먹이사슬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구례=이진택기자 ik5826

## “순천정원박람회 흑자 255억 예상”

### 市, 농촌경제연구원 용역...관광객 1천만명 넘을 것

순천시시는 오는 2013년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를 흑자로 치르겠다고 8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시로부터 정원박람회 유치개최 타당성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근 재정운영계획을 분석한 결과 정원박람회를 치를 경우 255억원의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됐

다. 흑자명세를 보면 부자매입비 547억원, 기반조성비 120억원, 행사경비 299억원 등 총 966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수입은 입장료 468억원, 광고 및 임대수입 49억원, 토지 잔존까지 706억원 등 총 1천221억원으로 255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 시는 입장료 수입 전망에 대한 일

부 부정적 시각과 관련해 "지난달 개최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가 27일동안 198만명이 방문, 180억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다"며 "따라서 6개월간 다양한 행사 등이 펼쳐질 순천정원박람회는 농촌경제연구원 이 전망하는 470만 명보다 훨씬 많은 1천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가능성이 높아 입장료 수입도 1천여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순천시 호두리 등 2곳에

### 마을전체가 '친환경 인증' 화제

#### 광양 관동마을 67가구 202ha

광양시 다압면 관동마을 전체 농가가 친환경 농업을 실천, 모든 경지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획득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양시 다압면 관동마을(대표 방성호) 67개 농가 경지면적 202ha 전 면적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다.

이 가운데 유기농이 80%, 무농약 15%, 저 농약 5% 순이다. 이 마을은 지리적으로 산악지대에 위치한 특성상 배·밭·매실·뽕은 감 등 과수 위주의 작목을 유기농으로 재배, 연간 1천555t을 생산하고 있다.

#### 대기오염측정장치 설치

순천만에 대기오염측정망이 대폭 확장됐다.

순천시가 지난 4일 해룡면 호두리 등 순천만 내 2곳에 대기오염측정장치를 설치함에 따라 순천만 지역 대기오염 측정장치 설치 장소는 지난 2006년 설치된 장천동, 연향동 등 2곳을 포함해 총 4곳으로 늘었다.

대기오염 측정장치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오존 등 대기 오염 기체는 물론 기상 상황을 실시간 자동으로 측정하는 장비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에 이들 측정장치를 설치한 것은 철새들의 서식 환경 중 대기질에 대한 정밀분석 자료로 활용되고 오존 경보를 통한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환경보전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featuring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 (Good location commercial building) and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Please come to our real estate company, a commercial specialis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금보부동산컨설팅' (Geombo Real Estate Consulting) with phone number 011-602-2233 and services for '판매팀' (Sales team) and '건물매매' (Building sal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국민공인중개사' (National Public Real Estate Broker) with phone number 011-635-7939 and listing various properties like '공시지가 2억 매개 2천 2천' and '상업지역 95p 공시지가 3억 5천 매개 2억 4천'.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변영 공인중개사' (Byeong Public Real Estate Broker) with phone number 062-531-4665 and listing properties like '모빌' (Mobile) and '신축모텔(매매, 임대)' (New mote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서울뉴-타운에정지 투지' (Seoul New-Town Investment) with phone number 062) 959-1033, 02)2607-7222 and listing properties like '강남·강북·강서 지역' (Gangnam, Gangbuk, Gangseo area) and '강남대로변빌딩임대' (Gangnam-daero side building rental).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경매전문회사 (주)호남 경매 컨설팅' (Auction Specialist Company Hoonam Auction Consulting) with phone number 062)228-6600 and listing services like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Gwangju City Donggu Jisan-dong 715-1 (2nd floor)) and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23 years of auction specialist company).